기고.

글. 마재완_ Ma, Jae-wan / KIRA
·
건축사사무소 가림 대표

2014년 WA-CUP 상해 대회를 다녀와서

An observation of 2014 World Architect-CUP Shanhai

1일차 :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동호회원 46명은 2014년 WA-CUP(World Architect Cup 세계건축사축구대회) 상해 대회를 참가하고자 인천국제공항(AM 10:50)과 부산김해공항(AM 09:50)에서 각각 출발하였다. 건축사 축구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WA-CUP은 한·중·일 건축사들의 축구제전으로, 매해 각 나라와 도시를 순회하며 '친선 도모와 건축문화 교류'를 캐치프레이즈 아래 성황리에 치러지는 대회이기도 하다. WA-CUP을 축하라도 하듯 비행기는 맑은 날씨 속에 상해 푸동 공항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운무에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1시간 30분의 비행 여정 속에 공항에 내려앉았다.

공항에 마중 나온 김해공항 출발팀이 먼저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와 합류하였고, 간단한 인사와 안내로 버스에 몸을 싣고 달려 시내 전망코스인 동방 명주탑에 도착하였을 때 인천공항 출발팀과 합류하여 기쁜 만남으로 동행하였다. 명주탑의 크고 작은 11개의 둥근 모양은 진주를 의미하고 유유히 흐르는 황포강은 옥쟁반을 상징하여 크고 작은 진주가 옥쟁반에 떨어지는 형상을 표현했다고 하며 높이가 무려 468m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초고속 전망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전망대 263m에서 상해 시내와 황포강의 포근함, 강변 주위를 둘러싸며 응원이라도 하듯 비상하는 고층빌딩군들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겼다. 안전강화유리로 된 바닥의 전망대에서 가슴 졸이며 애써 아름다운 포즈를 취해 한 장 추억 사진을 담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동방 명주탑에서 기념사진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드넓은 저층부 사이로 그 시대의 문화와 거리, 생활상을 재현해 놓아 무엇보다도 중국의 근대 발전사를 한눈에 보는듯했다. 또한 명나라 때 효심이 지극한 반윤단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조성했다는 예원에 들러 중국정원의 진수를 맛보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문화예술의 귀중함과 자부심의 흔적들을 마주했다.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면서까지도 보존되어 빛을 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값진 유산이 아니겠는가? 물결처럼 흐르는 정원 길을 따라 걸으니 어느덧 출구가 미로처럼 연결된 예원의 옛 거리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해의 명동거리, 남경로가 황혼 빛에 물들며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다.

예원 전경

잠시 분주함을 가다듬고 우린 다시 버스로 이동해서 상해 야경을 보러 황포강 유람선에 몸을 맡기었다. 웅장하고 남성

적인 낮과는 상반되게 야간의 동방 명주탑은 고운 빛을 발하였고, 덩달아 춤을 추는 상해의 야경까지!! 여성스럽다 못해 젊은 날의 연애시절을 연상케 한다. 가슴 저미게 비추는 불빛의 황홀함, 여기저기 인증 셔터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숙소로 발길을 재촉하여 버스에 오르니 상해 '정지하워드존슨호텔'의 얼굴이 살며시 눈에 들어왔고 동시에 눈이 스르르 감긴다.

황포강에서 바라 본 상해 야경

2일차 : WA-CUP 축구대회 깃발을 올리며

축구경기에 앞서 이번 대회를 주관한 동지대학교 건축설계연구원(Tongji Architecture Design Group)에서 왕 지안(Wang Jian) 부사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조(Joe) 건축설계1부 원장으로부터 연구원 리모델링 설계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받은 후 건립된 건물의 여기저기를 직접 동행하면서 설명해주어 더욱 더 인상이 깊었다. 주차장 건물을 설계원으로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였는데, 중정을 통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햇빛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였다. 일사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일사차폐장치에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일거양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각 파트별 설계실에 회의실과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실의 기능과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옥상조경과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최상층으로부터 열저항을 줄이고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켰다. 외관의 다이나믹한 매스와 마감자재는 설계자의 작품 완성에 심혈을 기울인, 한층 돋보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설명과 견학을 마치고 동지대학운동장 두 개면에서 WA-CUP 친선경기가 A, B, C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나라와 문

전체 기념촬영

화는 달라도 건축의 열정이 있었기에, 축구경기는 한층 열기를 더해가고 선수와 응원단 모두가 한마음 하나 되는 국경을 초월한 건축제전을 펼치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건축적 언어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대회가 가장 바쁜 시기에 잡혀 불행히도 일본팀이 합류를 하지 못했고, 대신 중국팀이 상하이에 기반을 둔 네 개의 건축사사무소(TJAD , ECADI, Hyp-Arch, UA)에서 각 한 팀씩 만들어 출전했는데, 대부분 20대와 30대의 젊은 직원들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한국팀은 노련미와 팀워크로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향상하는 젊은 패기에 우승을 못 한 아쉬움은 푸짐한 당나라 스타일의 환송만찬으로 달래야 했다. 상하이 까지 와서 젊은 친구들과 격의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WA-CUP 대회'의 초석이 다져졌고,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나눔 등이 오늘의 2014 'WA-CUP 대회'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며 맛있는 점심과 담소로 오전 게임의 피로를 풀었다. 꿀맛과 같은 휴식을 보내니 어느덧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가 귓전을 때리며 파이팅을 재촉한다. 비록 건축환경이 다르고 근무환경과 생활이 달라도 이번의 'WA-CUP'은 어느 대회 못지않게 잘 짜인 일정과 건축기행으로 마지막까지 기대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한국팀 기념촬영

3일차 : 2012년 프리츠커상 에 빛나는 '왕슈'의 작품을 만나다.

3박 4일의 여정의 3일째다. 아침부터 부산하고 가슴 뛰는 이유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12년 프리츠커상' 을 수상한 중국의 신예건축사, 순수 토종국내파, 주로 상하이 닝보, 항저우 등에서 활동했던 왕슈의 작품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정은 짧지만 더욱 기대와 설렘이 부풀어 올랐다. 넓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 항주만 대교(36km)를 2시간 달려 닝보미술관을 찾았다. 낡은 해운회사 사무실이었던 건물을 현대적 감각을 주는 미술관으로 바꾸기 위해 고심했던 차에 건물이 '왕슈'의 손에 맡겨지면서 예산을 1/3로 줄였고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동안 봐 왔던 그의 건물과는 사뭇 다르게 붉은 목재가 주된 마감이면서 그 느낌이 모던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닝보미술관 전경

또한 닝보역사박물관은 주변의 현대건축물들에 의해 변질되고 급해진 시간의 흐름을 최대한 늦추고 과거와 현대의 조화로움을 잘 드러내어 역사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된 기와나 벽돌들을 재활용하고, 그 재료들을 현대적인 공간과 언어로 재해석시킨 '왕슈만의 컨셉'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건축물 같아 한층 더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 건축사로서 더욱 고민했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외부에 면하는 여러 부류의 창들을 통해서는 르 꼬르뷔지에를 만나는 것 같았고, 물을 건축물에 끌어들여 디자인의 오브제로 사용한 점은 안도 타다오를 만난 것 같았으며, 지역성 짙은 재료에서는 가우디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건물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물길과 갈대밭, 건물 외관의 불규칙한 창들의 배열과 외벽의 사선들, 재료의 느낌을 잘 살려낸 마감들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잘 어루만져 순박하고 정직하며 거칠게 나타낸 점들이 인상 깊었다. 3층에 어머니 가슴같이 드넓은 옥상데크와 예쁘게 생긴 처녀의 쭉 뻗은 다리처럼 계단은 시간으로 가는 기찻길 속에 사랑이야기 같았고, 외부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은 역사의 카메라와 같이 옛것과 현대의 모습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다.

닝보미술관 옆 재현된 옛길

시간과 일정이 촉박하였지만 버스는 절강성에 있는 '중국미술학원'으로 냅다 달렸다. 조금 무리한 일정이었으나 건축사의 숨소리가 있었기에 일행의 마음을 재촉하며 부르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늦어져 일몰 후에 도착했고, 30여개 동으로 구성된 왕슈의 마스터플랜과 건물을 한 동씩 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 실망이 막 엄습해오려는 순간 어두워진 캠퍼스에서 하나의 보석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어두운 불빛에 드리워진 30여 건물들의 자유롭고 우아한 몸짓, 그중에서도 불빛을 머금은 '와샨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누워있는 듯한 매스, 대지에 축을 설정하고 여섯 개의 기본공간 사이에 계단과 중정을 두어 공간들을 연속되게 하고 기하학적 형상인 목조트러스가 부양하듯이 덮은 공간 연출은 자연재료를 소재로 하는 건축사의 미학이 더욱 빛난 작품이었다. 설계기간 3년, 시공기간 2년을 통해 고민과 번뇌에 가득 찬 건축사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멈춰진 시간 속에 묻혀 사라져가는, 과거의 화려했던 요소들에 건축사는 생기를 불어넣었고, 잉태라는 커다란 산고를 Re-cycle이라는 명분으로 토해낸 열정의 흔적에 우린 잠시 숨소리를 멈춰본다.

4일차 : 아쉬움을 뒤로하며! 2015 WA-CUP 일본 대회를 향하여

3박 4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안도에 한숨이 쉬어지기는커녕 왠지 가슴 벅찬 추억과 기억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한 건축사축구동호회원들, 형제들과 나들이 한 것처럼 다정하며 열띤 경기와 건축기행 속에 숨소리를 같이 하며 나누었던 외침과 울림이 건축이란 문화와 언어로 승화됨이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우리들에게도 이런 외침과 울림의 미학이 재생되고 세워질 때 '플리츠커 상'은 우리세대에 가능할 뿐 아니라 차세대 꿈나무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고 또한 그리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상하이 중국건축학회 관계자와 동지대학교 건축설계연구원 관계자 및 팀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15년 WA-CUP 일본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대한건축사축구동호회와 WA-CU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WA-Cup 주역들

WA-Cup에 대하여...
(World Architect Cup;세계건축사축구대회)

글. 신춘규_ Shin, Chun-gyu / KIRA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WA-Cup은 2002년 서울건축사회의 강남지역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해외교류를 위해 일본건축사협회(JIA)를 방문하여 동경에서 교류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전국건축사축구연합회로 교류를 확장하고 매년 방문과 초청으로 교류를 해왔다. 2006년 제주대회 때에 중국건축사들의 합류로 한·중·일 3개국 친선대회로 변화하고 AA-Cup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국은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상하이 중국건축학회(ASSC; Architect Society of Shanghai, China)가 주요 팀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1년 동경 세계건축대회를 기점으로 문호를 더 넓히기로 하고 WA-Cup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초청해서 해오고 있으나 참여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2012년 태국건축사협회(ASA)가 7개국을 초청하여 교류전을 치른 적이 있고, 2013년 한국에서 주최한 진주 대회에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최소를 한 적도 있다.

WA-Cup이 건축사들의 교류전임을 감안하여 일본 JIA의 Kazuo Iwamura 교수 겸 건축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지금까지 축구교류전 이전에 건축세미나를 통해 건축교류를 함께 해오고 있다.

WA-Cup은 국제통이거나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이 취미생활을 통해 다른 나라의 건축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진정한 의미를 둘 수 있다. WA-Cup을 통해서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른 나라의 건축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본다.

각국의 단장 및 연락책은 다음과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축구동호회

단장 : 연합회장 이진희(충북건축사회) toban8688@korea.com

연락 : 신춘규(국제위원회 자문위원) cgsaa@chol.com

일본건축사협회(JIA)

단장 : Kazuo Iwamura(교수, JIA 전부회장) iwamura@iwamura-at.com

Furuya Nobuyaki (교수, JIA 부회장) furya@waseda.jp

연락 : Masako Yasuda(JIA 사무국) myasuda@jia.or.jp

중국건축사협회 상하이 지부(ASSC)

단장 : Wang, Da Sui(ECADI 고문) dsw1973@ecadi.com

연락 : King Long(중국건축학회 상하이 지부) asscsh@163.com